

Financing for Net Zero Futures

2021 KB금융그룹 TCFD 보고서





Contents

3 Introduction

- 4 지구를 지키는 온도 1.5°C를 아시나요?
- 5 KB가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 6 TCFD,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 7 KB는 TCFD 지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 8 TCFD 이행을 위한 KB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9 Governance

- 10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KB가 앞장섭니다
- 11 기후변화 대응은 견고한 지배구조에서 시작됩니다

13 Strategy

- 14 기후변화는 분명한 위험 요인입니다
- 15 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16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먼저 준비합니다
- 19 [Special] 물리적 리스크로부터 고객을 보호합니다
- 20 기후변화를 함께 배우고 해답을 찾습니다
- 21 기후변화 위기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동참합니다

22 Risk Management

- 23 기후변화 리스크를 전사 리스크 관리에 통합합니다
- 24 ESRM은 기후변화 리스크 통합 관리의 기반입니다
- 26 적도원칙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27 Metrics and Targets

- 28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29 넷제로 이행을 위해 탄소는 줄이고 녹색금융은 확대합니다

31 Next Steps

Interactive PDF
사용자 가이드

본 보고서는 연관 웹 페이지 및 동영상 바로가기 등의 기능이 포함된 Interactive PDF로 발간되었습니다.

< 이전 페이지 이동

🏠 목차 페이지 이동

> 다음 페이지 이동



Introduction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기후변화는 악화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Bill Gates, 「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 중에서



지구를 지키는 온도 1.5°C를 아시나요?

기후 변화 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은행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물부족, 농작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강제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기후 이주민’이 2050년까지 2억 1,600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¹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자연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심화되면서 천문학적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생계, 식량, 용수, 노동 생산성 등에도 영향을 끼쳐 국제적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는 등 인류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기후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IPCC는 최근 6차 보고서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1.5°C 상승하는 시기가 이전에 예측했던 2052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구 평균기온이 지금의 추세로 상승할 경우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²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은 2015년에 파리기후협정을 맺고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억제하고, 더 나아가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³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는 2°C 목표로는 부족하며 1.5°C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순배출이 0이 되는 넷제로(net zero) 를 달성해야 합니다.⁴

넷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미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해 전통적인 탄소집약 사업에서 벗어나 친환경, 저탄소 사업으로 발빠르게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KB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넷제로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리딩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1 World Bank, [그라운즈웰 보고서](#), 2021

2 IPCC, [6차 제1실무그룹 보고서](#), 2021

3 UNFCCC, [파리기후협정](#), 2015

4 IPCC, [1.5°C 특별보고서](#), 2018



KB가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금융기관은 자본의 흐름이 친환경 부문으로 흘러가게끔 유도하는 Green Financing 활동을 통해 산업구조의 저탄소화를 촉진하고 우리 사회의 기후 복원력 제고하는데 기여합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업 본연의 역할 수행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KB Net Zero S.T.A.R.'와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각각 수립하고,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넷제로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KB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NET
ZERO
S.T.A.R. 0

탄소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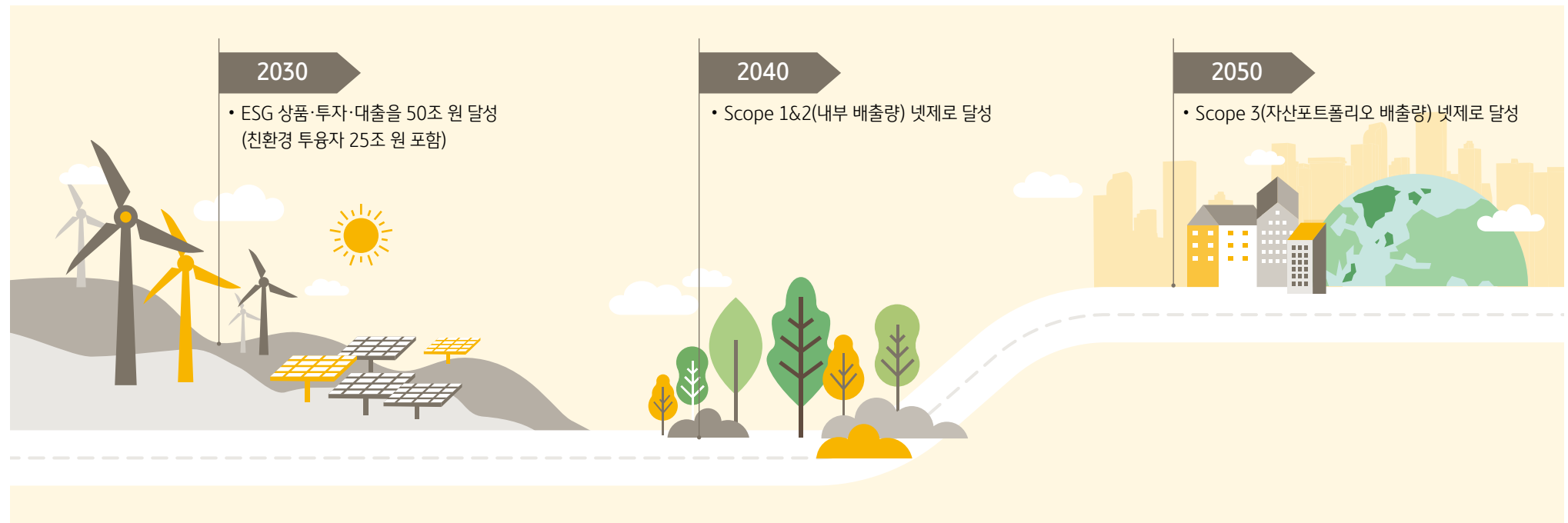
내부(2040년)

자산 포트폴리오(2050년)

KB
GREEN
WAVE
2030

50조 원

ESG 상품·투자·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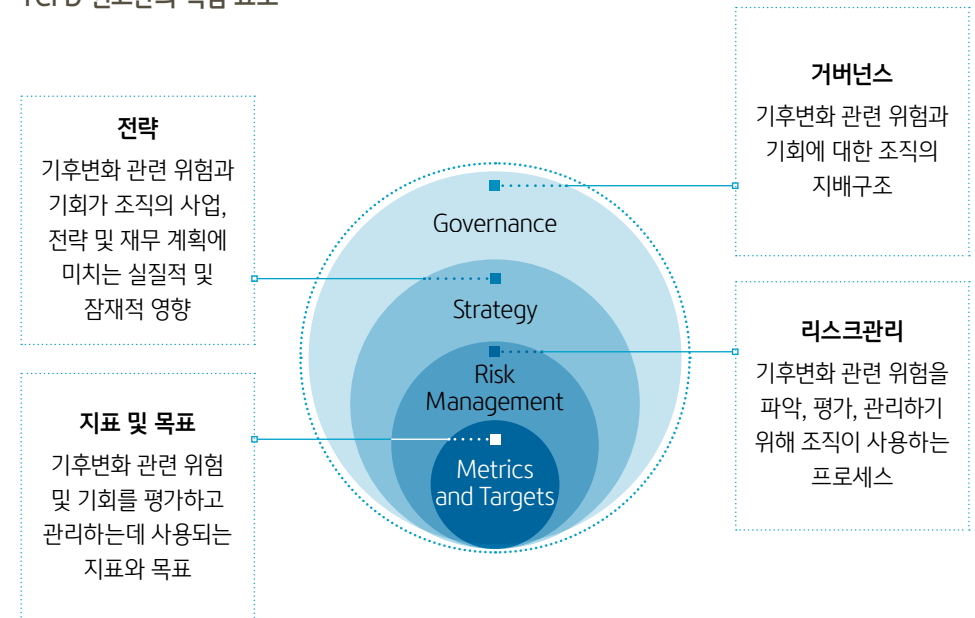
TCFD,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기후변화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20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기후변화 이슈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고 FSB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를 구성하였습니다.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자발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시 기준인 TCFD 권고안¹을 개발해 2017년에 발표하였습니다. TCFD 권고안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영역으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 지침을 제공합니다.

TCFD 권고안은 기업에게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 수립과 목표 이행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길라잡이입니다.

TCFD 권고안의 핵심 요소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2021년 현재 전세계 89개국 2,600개 이상의 기업, 정부, 감독기관 등이 TCFD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² 투자자들은 TCFD 권고안에 따른 공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주요 국가들은 TCFD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였습니다.

1 TCFD, TCFD 권고안,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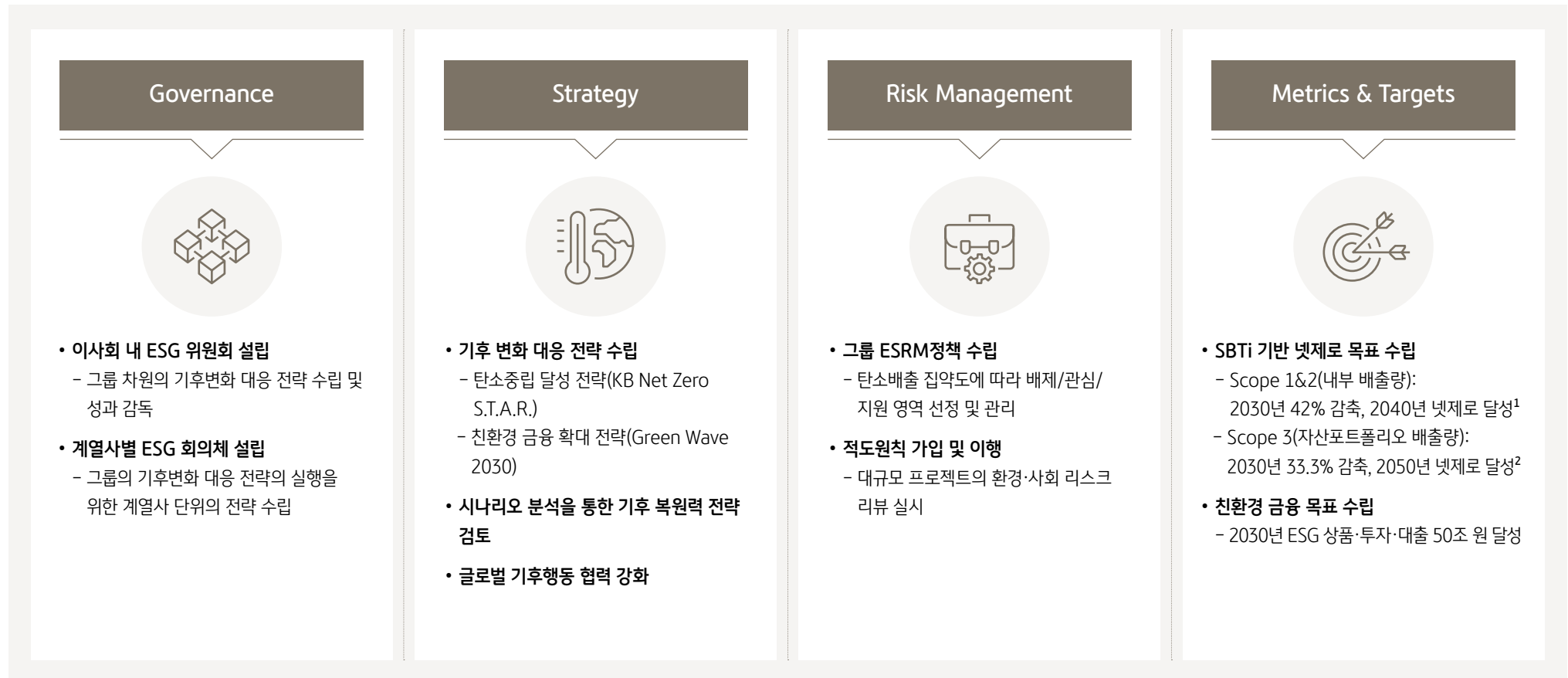
2 TCFD, 2021 Status Report, 2021



KB는 TCFD 지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KB금융그룹은 2018년에 TCFD 지지기관으로 가입한 이후 권고안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TCFD 이행 주요 성과



1 기준연도 2020년

2 기준연도 2019년



TCFD 이행을 위한 KB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KB금융그룹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TCFD의 4대 요소에 따라 2030년까지의 기후변화 전략 고도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Governance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지배구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KB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KB가 앞장섭니다

KB금융그룹의 미션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입니다.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객과 지역사회의 행복, 더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써 ESG는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KB금융그룹은 'ESG 리더십'을 경영전략의 한 축으로 선정하고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 전략 고도화는 KB금융그룹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KB금융그룹은 「Net Zero S.T.A.R.」와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을 모색하고 친환경 금융 생태계를 선도하겠습니다.

No.1 금융그룹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온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견고한 지배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기업의 견고한 지배구조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본 바탕입니다.

기후 변화 리스크와 기회 요소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사업전략과 재무 계획에 통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KB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 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ESG 위원회는 사외이사, 상임, 비상임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기후 변화를 비롯한 그룹 차원의 ESG 아젠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직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실행의 주체인 주요 계열사 단위에도 ESG 회의체를 설립하고 사업 단위별 기후변화 관련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주 및 전 계열사에는 ESG 전담 부서를 운영하여 기후변화 관련 전략 과제 추진을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지배구조





ESG 위원회 역할

ESG 위원회는 그룹의 ESG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ESG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 위원회는 '환경·사회 책임 경영과 좋은 지배구조 확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가치 및 고객 신뢰 제고'를 그룹의 ESG 전략 목표로 정하였으며, 환경 영역에서는 그룹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친환경 금융을 확대하는 등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 전략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SG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되며 2020년 설립 이래 그룹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전략 및 성과를 논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ESG 위원회 주요 결의 및 보고 현황

2020년 1차	그룹 ESG 전략방향 수립	결의
2020년 2차	그룹 탈 석탄 금융 선언	결의
2020년 3차	그룹 ESG 추진 현황 보고	보고
2021년 1차	그룹 탄소중립 전략 수립	결의
2021년 2차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정	결의

이사 역량 강화

ESG 위원회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KB금융그룹은 이사들의 역량 강화와 통합적인 인사이트 제공을 위해 기후 변화 관련 글로벌 트렌드, 감독규제 동향, 금융산업의 대응 방향, 공시 체계의 변화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KB경영연구소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내외 ESG 동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분기별로 이사회에 제공하여 이사회가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영진의 책임과 KPI

CEO를 비롯한 그룹의 경영진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실질적인 실행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룹 CEO는 ESG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위원회의 감독 기능과 경영진의 실행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KB금융지주의 Brand & ESG 그룹 대표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그룹의 ESG 업무를 총괄하고 기후변화 대응 아젠다를 그룹에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ESG 경영을 확산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경영진은 KPI에 기후변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KB금융그룹은 경영진의 KPI에 탄소배출량 감축, ESG 금융상품 확대 등과 같은 지표를 반영하여 보상과 연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성과주의에 기반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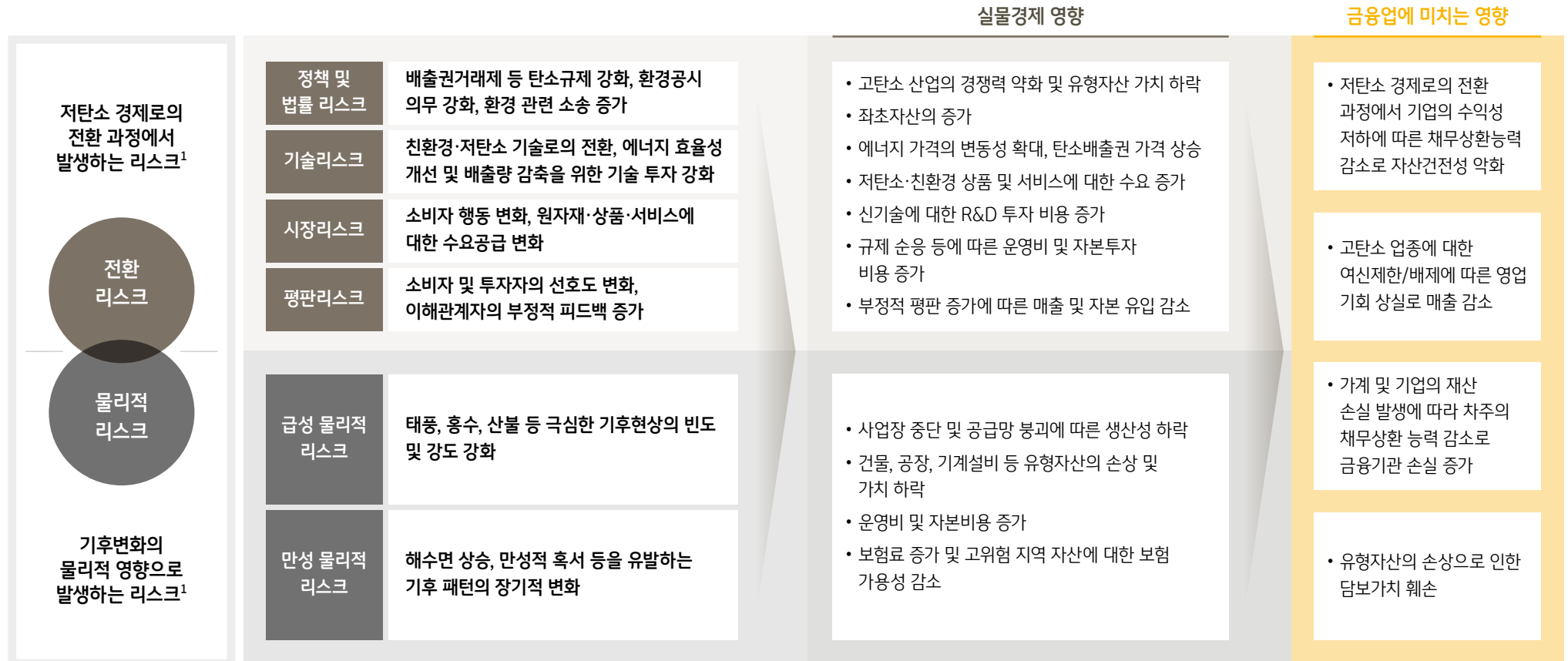
기후변화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며, 여러 산업 내 기업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은 보다 광범위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과 전략적 접근은 리스크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KB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성장의 선순환을 주도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분명한 위험 요인입니다

한국 정부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관련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 리스크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 간의 피드백을 통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시스템적 리스크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금융은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를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로 구분하고 잠재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파악하고 있으며 기후 리스크를 전사 리스크 관리 및 사업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기후변화 복원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¹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의 종류와 영향은 TCFD 권고안의 예시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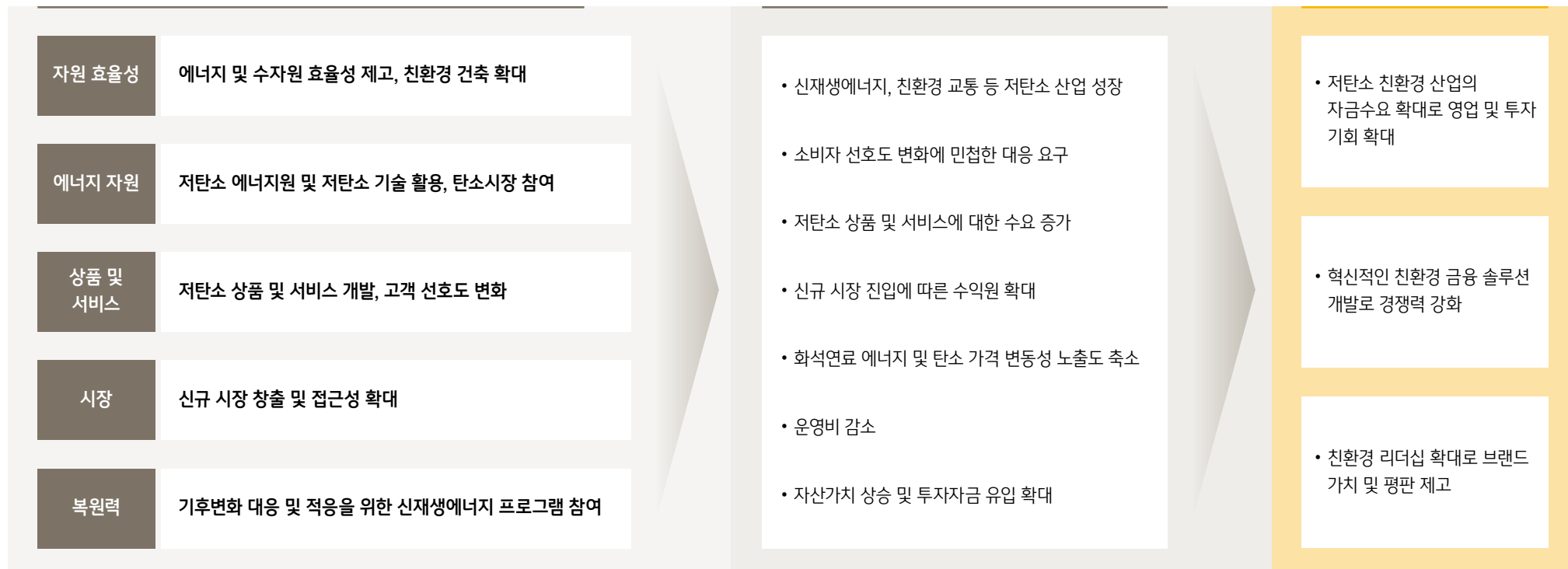
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산업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며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전략적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탄소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및 금융서비스 수요가 늘게 됨에 따라 각종 투융자, 녹색채권 발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험 등에서 신규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신기후체제에 걸맞은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후 변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찾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KB금융그룹은 경제구조가 친환경·저탄소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과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친환경을 선도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기회¹

실물경제 영향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1 기후 관련 기회 및 영향은 TCFD권고안의 예시 참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먼저 준비합니다

TCFD는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기후변화가 조직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과 조직의 복원력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정교한 기후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KB금융그룹은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기후변화가 조직의 사업전략과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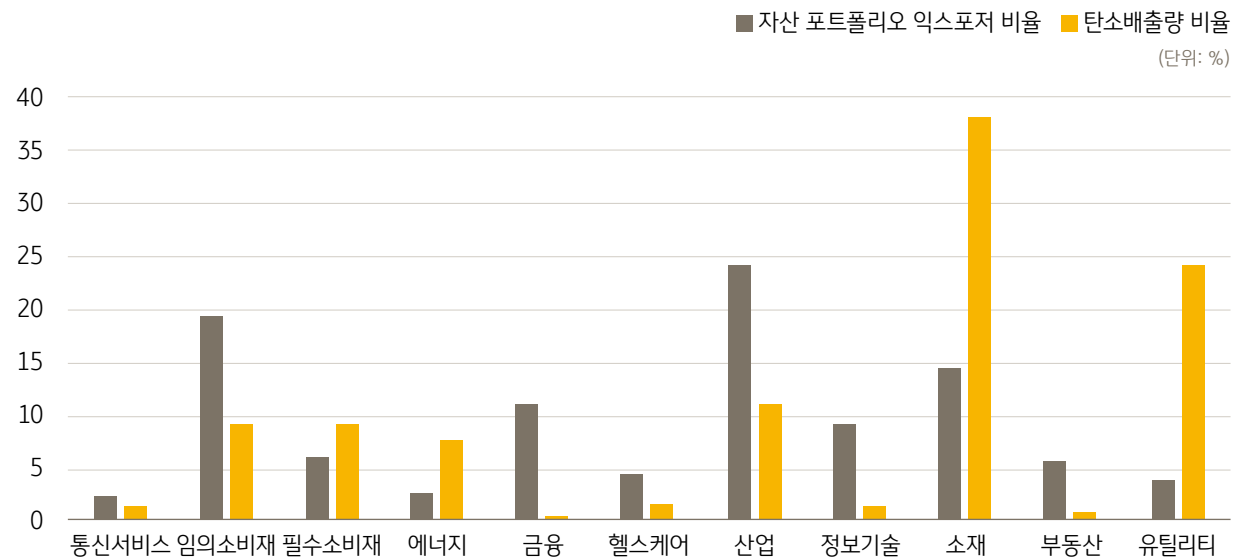
전환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전 세계적인 탄소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산업 전반의 탄소 비용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며 더불어 전환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KB금융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투융자기업의 탄소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와 함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산업부문별로 익스포저와 탄소배출량을 비교하고 탄소 집약도를 측정하였으며, OECD 및 IEA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2°C 시나리오 목표에 맞춘 미래 탄소 비용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범위는 기업대출, 회사채, 주식 등 기업금융 포트폴리오입니다.

산업¹ 부문별 익스포저 및 탄소 배출량 비율

자산 포트폴리오의 산업 부문별 익스포저와 탄소배출량의 비율은 포트폴리오의 탄소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이 집중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게 해 주는 지표입니다. KB금융그룹의 포트폴리오에서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섹터는 자본재, 상업 서비스, 운송 등의 산업 부문이나, 탄소 배출량 비율이 높은 섹터는 화학, 금속과 같은 소재 부문과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부문으로 나타났습니다.

1 산업 분류는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글로벌산업분류기준)에 따름





산업 부문 및 자산별 탄소 집약도

탄소 집약도는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으로 탄소배출의 효율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탄소 집약도(Carbon to Revenue, C/R) 분석 결과, 유틸리티 부문의 탄소 집약도가 가장 높고 소재 부문이 두번째로 높았습니다. 탄소 집약도 분석 결과는 기업 engagement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과 기업은 배제보다는 친환경 전환 유도 중심으로 engagement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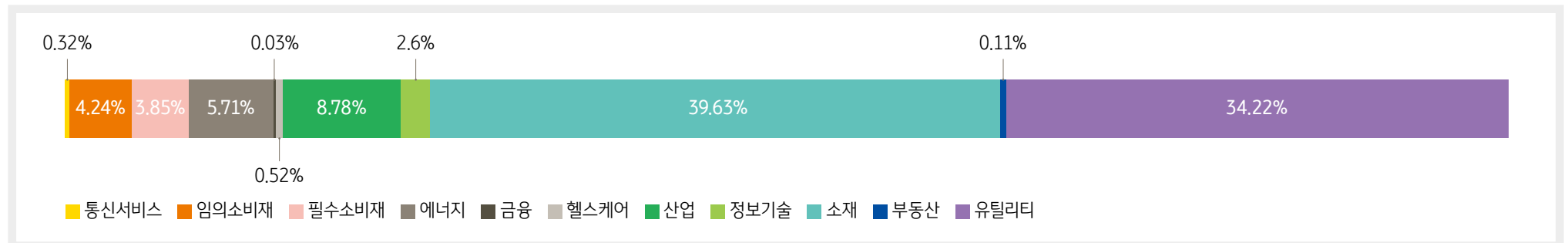
(단위: tCO₂e/백만 원)

종합	0.048	0.112	0.459	0.482	0.011	0.052	0.147	0.128	0.726	0.069	3.357
주식	0.036	0.108	0.427	0.494	0.006	0.058	0.309	0.113	1.313	0.067	3.886
회사채	0.063	0.103	0.160	0.493	0.004	0.050	0.140	0.227	0.951	0.068	4.274
대출	0.024	0.113	0.511	0.469	0.013	0.052	0.138	0.119	0.613	0.069	2.671
	통신서비스	임의소비재	필수소비재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산업	정보기술	소재	부동산	유틸리티

탄소집약도 낮음 탄소집약도 높음

산업 부문별 미반영 탄소 비용

미반영 탄소 비용(Unpriced Carbon Cost, UCC)은 기업이 각종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C 시나리오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탄소규제가 충분히 이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대표적인 고탄소 산업인 유틸리티 및 소재 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UCC의 비중이 73.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고탄소 산업에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들이 UCC를 모두 부담한다고 가정할 경우, KB금융 포트폴리오 중 약 7%가 마이너스 마진 리스크에 노출되는 등 KB금융의 재무건전성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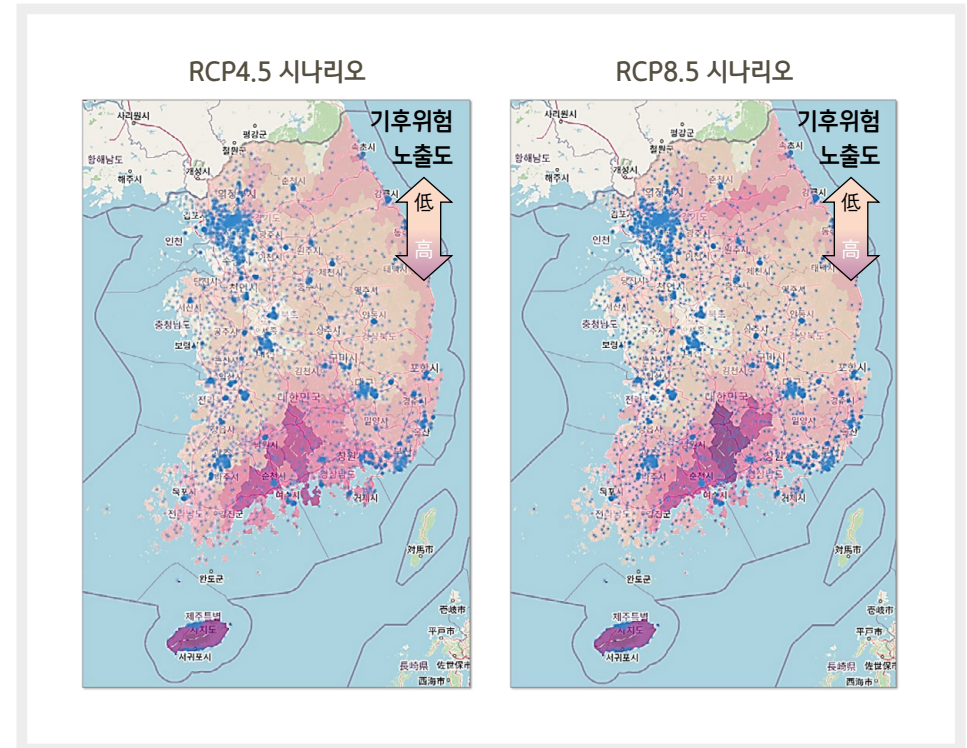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이상기상 현상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태풍 등의 영향으로 건물 및 기반시설 침수가 발생하며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규모를 파악하였습니다.

KB금융은 RCP 시나리오(RCP 4.5 및 8.5)¹를 활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가 여신 포트폴리오와 부동산 담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과거 침수피해 발생빈도, 향후 10년간 강수량 등 기상요소, 산사태 예측 경보 정보 등²을 종합하여 지역별 기후위험 노출도(Hazard Map)를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영향도를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후위험 노출 추정 부동산 여신 규모는 약 21.1조 원이며, 자연재해 발생 시 부동산 담보가치가 최대 5.5조 원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은 산업단지 중심의 대출 비율이 높아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기후리스크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여신의 기후 위험 노출도 시뮬레이션



1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대표농도경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성과에 따른 기후변화 차이를 가정하여 설정한 시나리오

- RCP 4.5: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

- RCP 8.5: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

2 출처: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한국국토정보공사,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산림청 산사태 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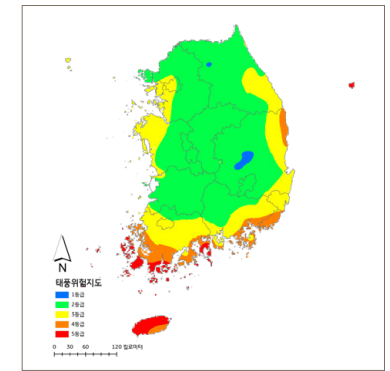
[Special] 물리적 리스크에 대비합니다

KB금융그룹의 자회사인 KB손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및 고객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위험지도 개발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연재난 발생 횟수 및 재산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최장기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 발생으로 최근 10년('10~'19년)의 연평균 대비 4배 이상의 재산 피해와 3배가 넘는 인명피해가 2020년에 발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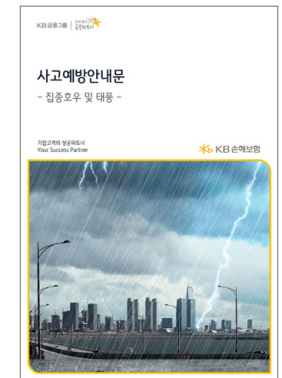
KB손해보험은 자연재난에 의한 물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연재난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수, 태풍, 지진, 산불, 폭염, 해일에 대한 자연재난 위험지도를 개발했습니다. 자연재난 위험지도는 지역별 자연재난 위험도를 미리 파악하여 보험 인수 및 보유 수준을 검토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담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됩니다.



태풍위험지도

사고예방 안내문 발간

자연재해의 급증에 따른 피해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KB손해보험은 자연재해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은 자연재해 관련 피해 유형 및 사례, 자연재해 사고예방 체크리스트, 피해예방 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사고예방 안내문은 KB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고객 및 임직원의 사고예방 인지도 개선을 위한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객 대상 사고예방 안내문



기후변화를 함께 배우고 해답을 찾습니다

기후 변화 위기라는 난제도 집단 지성과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을 확산하는 것이야말로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역량 강화

KB금융그룹은 전사적인 기후 변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친환경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를 통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초빙 강연, 기후변화 리스크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직원 참여형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 인식 제고

KB금융그룹은 고객,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ESG 및 기후변화 관련 인식을 제고하고 ESG 금융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B경영연구소와 KB증권 리서치센터는 기후 변화, ESG 금융, ESG 동향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이해관계자 인식 제고 및 지식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 시장 참여자의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및 기업 고객 대상 ESG 포럼,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B금융그룹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ESG 글로벌 서밋을 공동 주최하여 경제 전반의 ESG 경영 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가 초빙 강연	 기후변화 관련 심화 교육	 직원 참여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경희사이버대 조천호 교수) • ESG와 녹색금융의 국내외 동향과 과제 (UNEP FI Korea 임대웅 대표) • 금융회사의 ESG 경영과 투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신진영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뮬레이션 기반 적도원칙 이행 교육 • 경영진 대상 ESG 경영 투자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컷! ESG 마스터하기 • KB ACE Live 퀴즈쇼 ESG 특집편 • 기타 다양한 ESG 교육 영상 및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KB증권 ESG 포럼



기후변화 위기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동참합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KB금융그룹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한 시나리오, 목표수립, 공시 등에 대한 방법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을 위해서도 글로벌의 트렌드를 면밀하게 따라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KB금융그룹은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과의 연대를 통해 최신 기후변화 정보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공동 협력



유엔환경프로그램 금융이니셔티브 책임은행원칙

- 2019년 9월 PRB 창립 서명기관으로 가입
- 파리기후협약과 UN SDGs 이행을 위한 활동 수행



NZBA

- 2021년 4월 창립멤버로 가입
- 최고의사결정기구인 Steering Committee의 아태지역 대표은행으로 국내 최초 선출
-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담당

기후변화 대응 관리



적도원칙

- 2021년 2월 가입(KB국민은행)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환경·사회 리스크 평가 수행

RE 100

RE100

- 2021년 9월 국내 금융그룹 최초 가입
- 내부 탄소 배출량의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감축 목표 설정 및 측정



과학적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 2021년 4월 가입
- 아시아 지역 및 국내 기업 최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SBTi 승인 획득



탄소회계금융협회

- 2021년 4월 가입
- 국내 금융그룹 최초 PCAF 방법론을 활용한 자산소프트폴리오의 배출량 산정

국내최초

기후변화 정보 공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 2009년 7월 가입
- 기후변화 대응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및 4년 연속 금융부문 섹터 아너스상 수상
- CDP investor 서명기관으로 상장기업 대상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시 촉구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 2018년 10월 지지기관 가입
- TCFD권고안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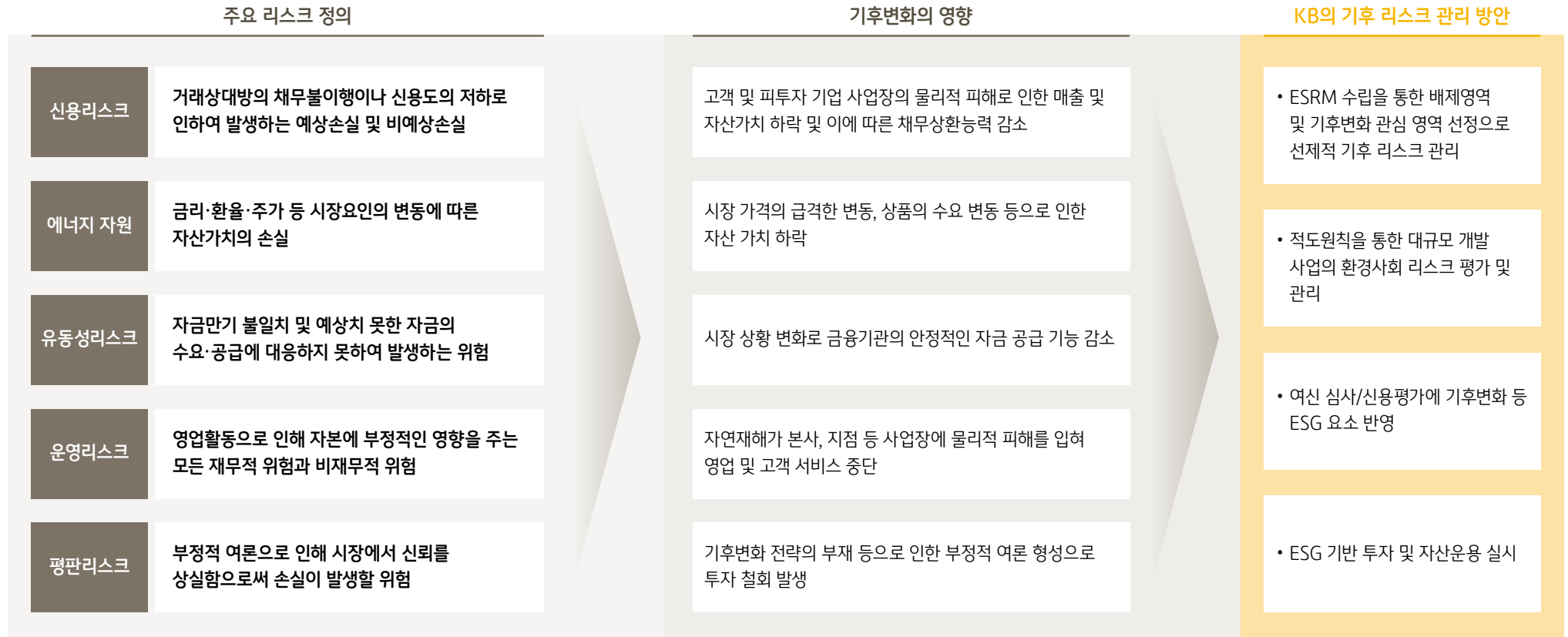
Risk Management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정의하고 평가하여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ESRM) 제정을 시작으로 기후변화 리스크를 포함한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를 전사 리스크 관리에 통합합니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른 전통적인 리스크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금융은 기후 변화가 주요 리스크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반영하여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ESRM은 기후변화 리스크 통합 관리의 기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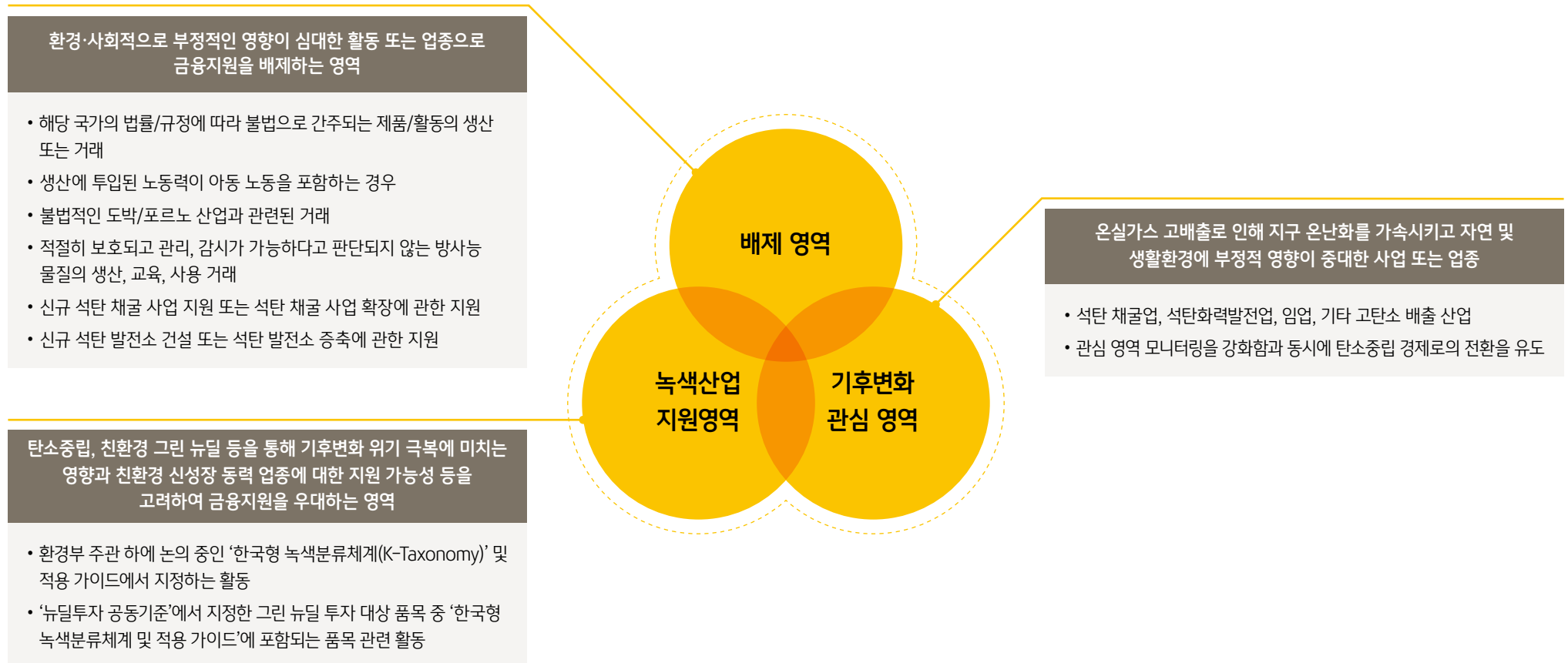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산업 정책 등 환경 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이를 위해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ESRM)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룹 ESRM은 친환경 투자자 확대를 통한 금융생태계 선도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리스크 관리의 기반이 됩니다. ESRM은 환경 사회 리스크의 영향 인식, 평가, 관리 체계를 기술한 모범규준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심영역에 대한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영역 선정

KB금융그룹은 금융투자 의사 결정의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저탄소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의 실현을 위해 그룹 ESRM을 수립하였습니다. ESRM은 ‘배제영역’과 ‘기후변화 관심 영역’을 선정하여 환경·사회 측면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지원하는 ‘녹색산업 지원영역’을 별도로 선정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적도원칙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KB금융그룹은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시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를 통해 관련 위험 및 영향을 식별, 평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21년 2월 적도원칙에 가입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적도원칙에 따라 잠재적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을 평가해 오고 있으며, 그룹 ESRM 수립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의 대상을 그룹 전체 계열사에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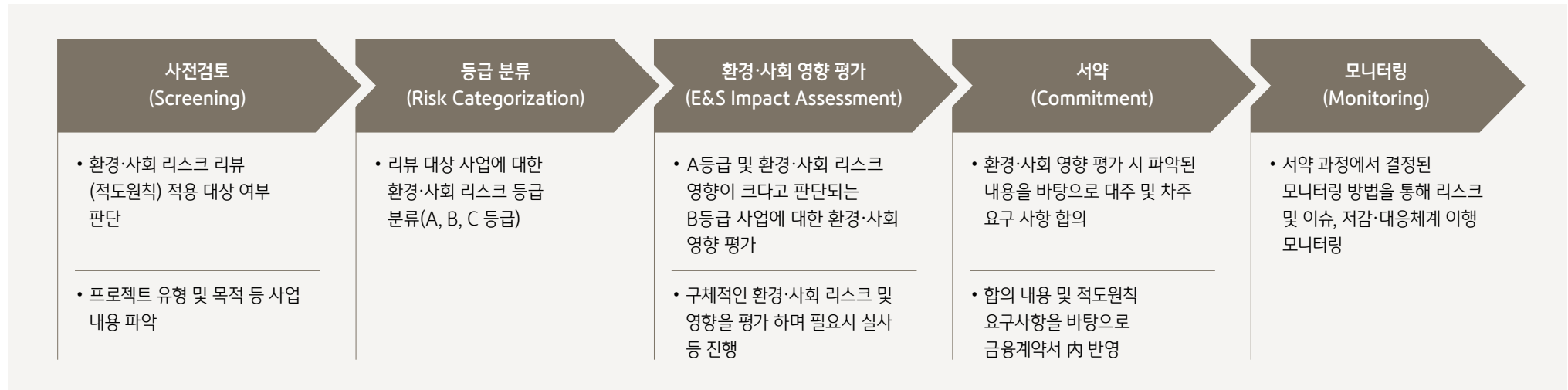
미화 1천만불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적도원칙 기반) 대상

- 적도원칙 가입 계열사: 자체 적도원칙 관련 취급 프로세스에 따라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실시
- 적도원칙 미가입 계열사: 해당 계열사별 사업 영역, 비즈니스 내 역할, 환경 리스크 관리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심영역 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실시



2021년 2월
KB국민은행 적도원칙 가입

대규모 프로젝트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프로세스





Metrics and Targets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계량화하여 측정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B금융은 측정 가능한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재무적 요소 중심인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는 재무정보와 달리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한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 가능해야 관리할 수 있다’는 말처럼 KB금융은 넷제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를 측정·관리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직접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Scope 1&2)의 양은 적은 반면 투자 및 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Scope 3 배출량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KB금융은 내부 배출량인 Scope 1과 Scope 2 외에도, 자산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인 Scope 3에 대한 넷제로 목표를 파리기후협정의 2°C 이하 경로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혁신적인 금융지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후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자 ESG 금융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1 금융회사의 대출 및 투자와 연계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공시하는 공통의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과학적 기반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이니셔티브
- 2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이 과학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방법론 개발 및 자문)를 제공하고 감축 목표 승인 등을 담당하는 이니셔티브

Scope 3(자산포트폴리오 배출량) 산정 프로세스

KB금융은 자산포트폴리오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PCAF¹ 방법론을 활용하였습니다. PCAF의 방법론은 글로벌 온실가스 회계 표준인 GHG Protocol에 기반하여 수립된 일관성 있고 검증된 측정 기준입니다.

또한, KB금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SBTi² 에서 요구하는 기업금융, 발전PF, 상업용부동산의 자산 유형별 커버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금융의 경우 익스포저 30억 원 이상을 산정의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익스포저 30억 원 미만이라도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기업은 포함시켜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산정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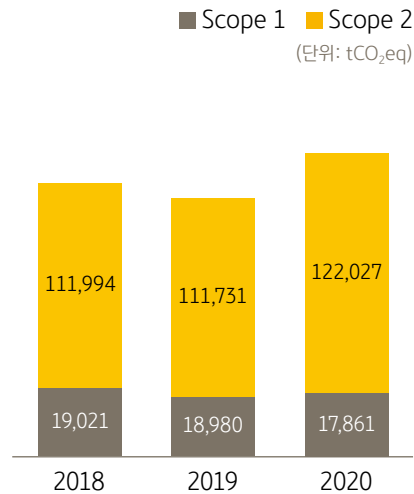
넷제로 이행을 위해 탄소는 줄이고 녹색금융은 확대합니다

KB금융그룹은 SBTi 에서 제시하는 가장 최신의 감축 목표 방법론을 활용하여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21년 10월 SBTi 로부터 탄소감축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SBTi 승인은 금융회사로서 아시아 지역 최초이자 국내 기업 중 첫 번째 사례입니다. KB금융그룹은 과학적 기반의 감축 목표를 수립·승인 받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 고객들이 SBTi의 기준에 따라 명확한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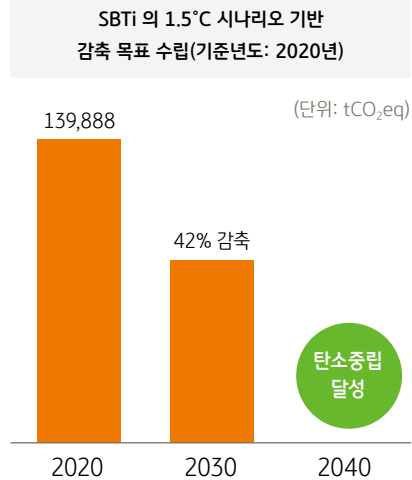
Scope 1 & 2(내부 배출량)

KB금융은 소유 건물, 임차 건물, 업무용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Scope 1과 구매전력에서 발생하는 Scope 2 배출량을 매년 산정·관리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RE100이행 등을 통해 내부 배출량의 204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배출량 현황(2018~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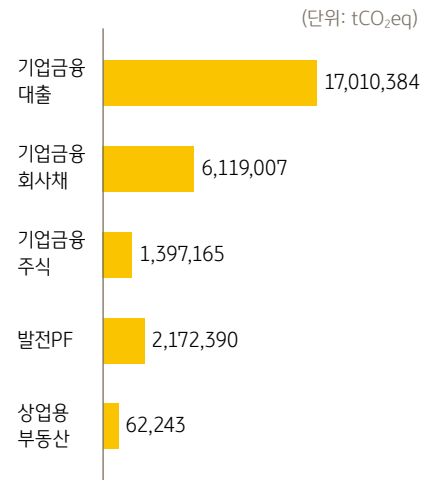
•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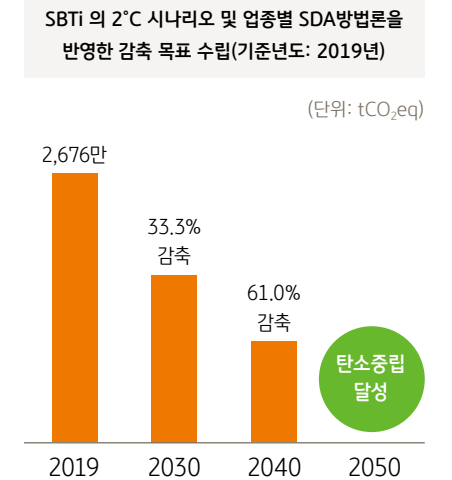
Scope 3(자산포트폴리오 배출량)

KB금융은 금융지원을 통한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2021년 최초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배출량을 산출하였습니다. KB금융은 자산포트폴리오의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배출량 현황(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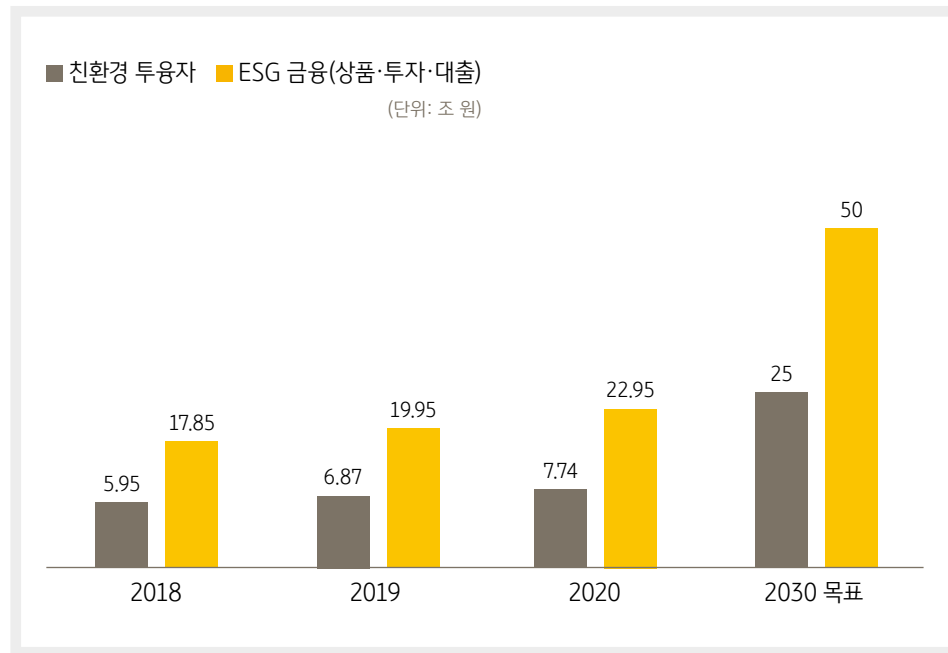
• 감축 목표





친환경 금융

KB금융은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을 50조 원 규모로 확대하여 환경·사회적 임팩트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 중 50%인 25조 원을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및 친환경 기술 등 친환경 부문에 투자와 대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ESG 채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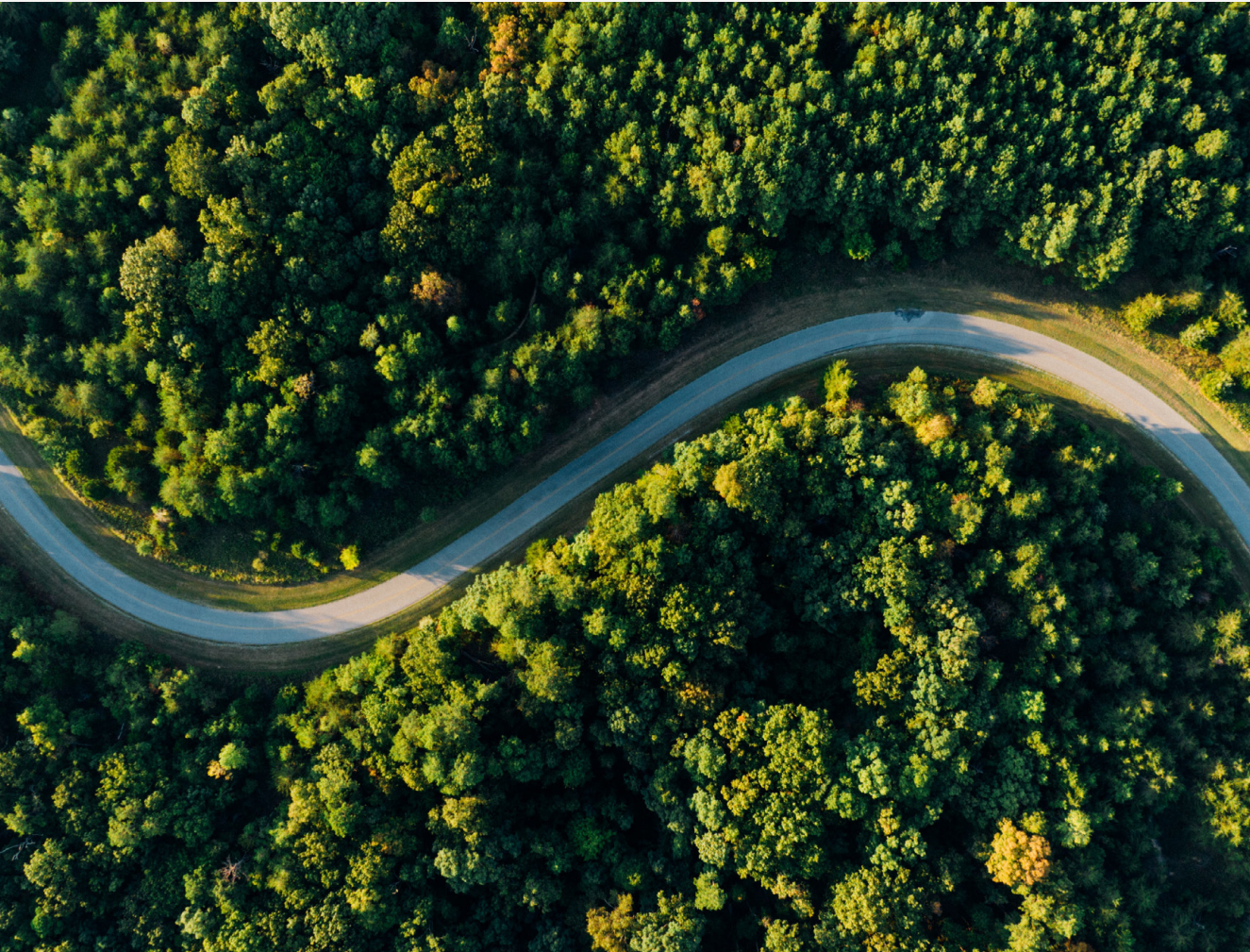
KB금융그룹은 친환경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ESG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최초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한 이래로 다양한 지속가능채권, 소셜본드, 그린 본드를 발행해 오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그린 본드의 발행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환경부와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행은 2021년 10월 국내 최초로 5억 유로 규모의 그린 커버드 본드를 발행하는 등 친환경 녹색금융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Sustainability Framework)를 구축하고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자금 배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제정한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녹색채권원칙, 사회적 채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되고 외부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second party opinion)을 받았습니다.

그룹 ESG 채권 발행 현황('21.10월 기준)



* 외화 채권의 경우 2021년 10월 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Next Steps



기후 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는 이미 충분하며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혹독하게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극복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 나라,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 기업, 시민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탄소 배출량 감축,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후 리더십 발휘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위해 확고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Contact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19층

KB금융지주 ESG 전략부

02-2073-7847

www.kbfg.com

관련 보고서



KB금융그룹의 ESG 활동 관련 추가 정보는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 금융그룹